



한우 농가를 방문한 신우철 군수.

/완도군

완도군 친환경 축산물 인증 확대 추진

신규 인증농가 심사비용 전액 지원

완도군이 '완도자연그대로 한우 및 흑염소' 브랜드 정착을 위해 친환경 축산물 인증 확대에 힘을 쏟고 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이란 환경을 보전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항생제, 호르몬제 등 화학자재를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량을 사용하여 생산한 축산물에 부여하는 인증이다.

군은 친환경 축산물 인증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친환경 축산물 인증 신청 비용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인증 유지를 하고 있는 한우 번식 농가는 송아지 생산장려금, 인증 기간 동안 출하한 농가에는 출하 가축 장려금을 호당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 농가에는 친환경 인증을 유지할 경우 1년 단위로 호당 3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은 가축의 적정 사육밀도 기준 준수 등 가축 사육환경 개선 및 위생적인 사양 관리를 추구하는 농장을 말한다.

/전남 완도=이제건 기자 wando1106@

기장군 '세계청소년 야구선수권 대회' 열린다

지자체 국제경기대회 공모사업 선정

부산 기장군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2019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제29회 세계청소년 야구선수권 대회'는 올해 8월30일부터 9월8일까지 10일간 기장-현대차 드림볼파크에서 개최된다.

이번 공모사업은 총28개 국제대회를 개최하는 14개 시·도가 참여하여 열린 경쟁을 펼쳐 그 중 12개 시·도, 17개 국제대회가 선정됐다.

특히 기장군은 이번 공모사업에 지자체별 지원액 중 최고액인 국비 5억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둬 여느 지자체보다 더 완벽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준비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제29회 세계청소년 야구선수권 대회'



리틀야구장 모습(오른쪽).

/뉴스시

는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최고 권위의 청소년야구대회로, 전 세계 야구 방문객들에게 야구 메카로 부상하고 있는 기장군을 비롯해 한국을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2개국 600여 명의 선수단과 국제관계자들의 방문으로 인한 야구 관련 산업분야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최인택 기자 remark@

경기도 中企에 R&D지원금 최대 1.5억 지원

경기도는 올해 5억원의 예산을 들여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을 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을 대기업이 구매한다는 조건으로 업체당 1억~1억5천만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2013~2017년 12억5천만원을 지원해 총 14건 과제를 완료, 매출 8억 8천만원, 신규 고용 48명, 특허출원 20건 등의 성과를 냈다.

올해도 5개 안팎의 과제를 선정, 기업당 1억에서 1억5천만원까지 총개발비의 60% 이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김승열 기자

호반건설 광주 어등산관광단지 사업권 포기

원점서 재검토, 공공성 확보

공모 통한 민간사업자 재선정 도시소 직접개발 등 방식 검토

빛그린산단 대규모 인프라 조성 '어등산 가치, 개발 사업성 상승'

현대자동차와의 투자 협약 체결로 '광주형 일자리' 문제를 풀어내면서 광주시의 다른 대형사업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광주시는 지난달 31일 현대차와 완성차 공장 설립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줄이고 일지리를 늘리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 구축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

시는 2021년 하반기 완성차 공장 가동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하지만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민간공원 특례사업, 군 공항 이전 등 다른 대형사업은 특혜 등 각종 논란에 휩싸여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특히 광주시가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어떤 밑그림이 그려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였던 호반건설이 지난달 30일 협약체결을 포기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광주시는 호반이 우선협상자 지위를 반납한 것으로 보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공모를 통해 민간사업자를 다시 선정하거나 도시공사가 직접 개발하는 방안 등 여러 방식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광주형 일자리 첫 모델인 현대자동차 합작공장이 빛그린산단으로 결정된 것은 어등산 개발의 주요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어등산 관광단지 조감도.

/뉴스시

호반건설이 어등산 개발에 약 1조원 투자를 계획하고도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업을 포기했으나 광주형 일자리 어등산 개발의 여건이 크게 변했기 때문이다.

정부와 광주시는 어등산 인근에 위치한 빛그린산단에 ▲행복·임대주택 ▲진입도로 개설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건립 ▲공동 직장어린이집 ▲개방형체육관 신축 등 인프라 구축에 3000억원대 예산을 투입한다.

막대한 인프라가 조성됨에 따라 어등산 개발의 사업성도 크게 높아졌다는 것이 광주시의 분석이다.

광주시는 공공재인 어등산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수익에 앞서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호반건설 측에 레지던스호텔의 위탁운영을 요구한 것도 공공성 확보 차원이었으며, 호반 측이 거부해 결국 협상이 무산됐다.

호반건설은 총사업비 1조360억원을 투자해 숙박시설(레지던스 1488실, 특급호텔 250실, 콘도 56실), 상가, 인공해변(가칭 크리스탈리군), 워터파크, 아트센터, 창업지원센터, 체육공원 등의 사업을 제안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빛그린산단이라는 호재로 호반건설의 사업 포기가 오히려 어등산 개발의 새로운 접근을 가능하게 했다"며 "호반건설과의 협상 과정을 면밀하게 되돌아보고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개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봉채영 기자 bcy2020@metroseoul.co.kr

경기도시소 "주택 385가구 매입해 무주택 서민에"

경기도시공사는 올해 무주택 서민에게 임대 공급하기 위한 기존 주택 385가구를 5차례로 나눠 매입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공사는 이를 위해 1차로 오는 28일까지 매도신청을 받는다.

매도신청 대상 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다.

세대주택·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과 전용면적 4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공사는 이 주택을 매입해 개·보수한 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청년 등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에게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임대할 계획이다.

매도 희망자는 공사 방문 또는 우편으로 매도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사는 매도신청 접수된 주택을 대상으로 입지여건, 주택품질, 지역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감정평가금액 등을 참고해 매도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매입공고의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 '분양안내-분양공고'를 참고하거나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 의정부=김승열 기자 kimsy@

장성군 이달부터 전 군민

군민안전보험 시행

이제 장성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험 하나는 들게 된다.

장성군이 2월부터 외국인인을 포함해 군민 누구나 가입비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군민안전보험을 시행하기 때문이다.

보상규모는 최대 1000만원으로 안전사고(폭발·화재·붕괴)와 교통사고(행소나·무보험차·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사고) 등 실생활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10종의 사고에 대한 사망 및 후유장해를 보장하고 있다.

또 기존에 다른 보험을 이용하고 있던 군민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전남 장성=봉채영 기자

광주시, 문체부 사업 선정... 9천만원 확보

'광주오픈 국제남자 테니스대회'

광주광역시가 체육분야 국비 확보에 시동을 걸었다.

시는 '2019 광주오픈 국제남자 챌린저 테니스대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2019 지자체 개최 국비지원 대상 국제경기대회'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9000만 원을 지원받겠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체육분야에서 첫 국비 확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19 광주오픈 국제남자 챌린저 테니스대회'는 전국 지자체에서 신청한 총 30여 개 대회 중 우수한 평가를 받아 전국 12개 시도 17개 국비지원대회 중 하나로 선정됐다.

오는 5월 광주에서 열리는 '광주오픈 국제남자 챌린저 테니스대회'는 4대 메이저 대회와 투어 대회에 이은 세 번째 권위의 대회다. 호주, 일본, 미국, 인도네시아 등 40여 개국 100여 명의 선수들이 광주진월 국제테니스장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실력을 선보이며 각축전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광주·전남 지역의 유일한 국제 테니스 대회로, 국내 유망주들이 세계 무대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광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수준 높은 테니스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스포츠 비전을 선도하는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봉채영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31 | 해질 / 18:02

2월 7일 (木) 음력: 1월 3일

수도권 날씨 -1 ~ 1℃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3/0, 동두천 -2/2, 가평 -1/2, 백령도 -4/-6, 파주 -4/0, 서울 -1/1, 양평 1/4, 인천 -2/-1, 수원 -1/0, 용인 -1/0, 평택 -1/3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